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중기중앙회 재차 방문하여 현장의견 경청

- 노조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하여 중소기업 의견을 수렴하고,
중소기업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철저히 법 시행을 준비할 것임을 강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19일(화)에 취임 직후 첫 번째 방문한 경제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를 한 달여 만에 다시 방문하여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및 임원, 주요 산업별 협동조합 대표 등과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영훈 장관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원하청이 단절에서 벗어나 협력의 관계로, 수직적 구조가 아닌 수평적 대화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이 되어 현장의 대화를 촉진하는 법이며, 이를 통해 분쟁을 줄이고 원하청은 협력과 상생을 통해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히며, “현장의 우려와 불안도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법 개정 후 경영계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상시적인 현장지원단 TF를 운영하여 현장의 목소리와 상황을 꼼꼼하게 살피겠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법 시행까지 6개월 동안 구체적인 매뉴얼 및 지침을 마련하여 현장의 우려와 불확실성을 해소하면서, 특히 원하청 교섭 과정에서 조정 지원을 강화하여 하청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담당 부서	노사협력정책관	책임자	과 장	서명석 (044-202-7611)
	노사관계법제과	담당자	사무관	박미희 (044-202-7607)
담당 부서	노사협력정책관	책임자	과 장	박은경 (044-202-7587)
	노사협력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송이 (044-202-7589)

□ **일시:** '25. 8. 19.(화) 10:00

□ **장소:** 중소기업중앙회 리더스룸(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30, 5층)

□ **참석자**

○ (고용노동부) 장관, 노동정책실장, 노사협력정책관, 노사관계
법제과 및 정책과장 등

○ (중기중앙회) 회장 및 임원, 주요 산업별 협동조합 대표 등 8명

□ **세부 진행계획** ※ 환영사 및 인사말씀, 사진촬영까지 공개

시 간 (총 60분 내외)	내 용	비고
10:00~10:05 (5')	▪ 도착	
10:05~10:15 (10')	▪ 환영사(회장) → 인사말씀(장관) ▪ 참석자 소개 및 사진촬영	리더스룸(5층)
10:15~11:00 (45')	▪ 질의응답 및 애로사항 청취	비공개